

치유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 대순진리회의 입장에서 -

윤 재 근 · 김 영 주
대진대학교

〈요 약〉

우리사회의 ‘힐링(Healing)’열풍은 힐링캠프, 힐링요가, 힐링여행 등에서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캠프, 요가, 여행 자체가 벌써 심신의 치유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치유’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웰빙’이 대세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어버린 ‘힐링’이라는 용어를 통해 현대인들이 느끼는 심신의 피로현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종교나 교육은 모두 인간을 그 대상으로 삼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심신이 지친 현대인으로 하여금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은 인간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치유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피교육자가 원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모습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치유를 종교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치유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입장을 논의함에 있어, 먼저 대순진리회 치유프로그램의 사상적 배경을 19세기 말의 시대적 상황과 민중의식을 바탕으로 증산의 시대인식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개인치유와 사회치유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순진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치유프로그램으로서의 청소년캠프 현황을 바탕으로 청소년캠프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종교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프로그램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하는지는 중요 관심사에 분명하다. 청소년은 국가·사회의 동량이자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존재이며, 건전한 종교문화를 창달할 내재적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핵심주제어: 치유, 마음, 개인치유, 사회치유, 청소년캠프

I. 서론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아이콘 ‘힐링(Healing)’. 어느 순간 우리는 ‘치유’를 의미하는 ‘힐링’이라는 용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힐링캠프, 힐링요가, 힐링여행 등등 그 자체가 치유의 의미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치유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웰빙’이 대세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으며, 구성원들 대다수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무수한 상처와 아픔 속에 그것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불치의 병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 정신적 장애와 대인간 갈등에 인한 마음의 상처 등으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 부조리에 의한 구조적 문제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시대적 아픔을 양산한다. 어쩌면 ‘세월호 사건’이나 군대내 폭행 및 자살의 사건은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가 야기한 공공의 상처라고 하겠다.

종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유된 세계관과 사회적 질서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질병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치료과정이 세계관을 바꾸고 사회적 질서를 재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¹⁾ 이는 사회병리현상이 심각한 삶의 위기로 나타나며,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공동체의 위기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해와 치유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유’이전에 유사용어로 ‘치료’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치유’가 ‘치료’를 대신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치료’에는 몸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이에 비해 ‘치유’는 몸뿐만 아니라 정신 또는 마음의 상처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른바 전인치유인 셈이다. ‘치료’보다 ‘치유’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심신의 피로현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종교나 교육은 모두 인간을 그 대상으로 삼으며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체계의 축적인 즉, 인간의 변화에 대한 의미작용인 셈이며, 그 변화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지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학이 본질적으로 ‘인간형성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인간형성은 교육적 변화에 의한 바람직한 인간의 형성이며, 종교 또한 궁극적인 변화의 수단으로 간주된다면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인간의 본질을 발현하게 하는 수단이 종교가 되는 것이다.²⁾ 그런 의미에서 심신이 지친 현대인으로 하여금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은 인간에 대한 전인적 치유

1) 류성민, 『종교적 질병 치유의 사회문화적 의미』, 『종교연구』 제35집(서울: 한국종교학회, 2004), 2쪽.

2)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 - 인존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246-248쪽.

에 해당하는 셈이 된다. 전인적 치유는 전인적 인격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피교육자가 원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내재된 본연의 모습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요즈음 우리사회는 화합과 통합보다는 도리어 미움과 분열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더욱 팽배해져 가고 있다. 윤리의식의 상실, 소통의 단절, 재화의 편중, 이념과 지역의 대립 등으로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으며, 그 안의 구성원들 또한 병들게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치유를 종교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종교적으로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유프로그램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하는지는 중요 관심사임에 분명하다.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동량이자 성숙한 시민의식의 내재적 존재이다. 또한 종교적 측면에서 청소년은 건전한 종교문화를 창달할 내재적 신앙인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한 치유의 사고와 행동은 귀하고도 중한 것이다.

치유와 관련한 대순진리회의 입장을 논함에 있어, 먼저 대순진리회 치유프로그램의 사상적 배경을 19C말의 시대적 상황과 민중의식을 바탕으로 증산의 시대인식과 ‘병세문(病勢文)’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개인적 치유와 사회적 치유로 나누어서 설명할 것이다. 개인적 치유는 성숙한 신앙인을, 그리고 사회적 치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종교적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지향점을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은 청소년이라는 개인적 측면의 치유와 교육이라는 사회적 측면의 치유의 교집합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치유프로그램으로서의 청소년 캠프 현황을 바탕으로 청소년 캠프의 과제를 고민해 보고, 전망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II. 대순진리회 치유프로그램의 사상적 배경

1. 19세기 말의 시대상황과 민중의식

조선에서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은 양란(임진왜란: 1592-1598, 병자호란: 1636-1637) 이후 본격화된 총체적 모순이 심각하게 표출되던 시기였다. 내적으로는 누적된 폐습이 고착화 되었으며, 외적으로는 서학을 비롯한 외래사조가 유입되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당시의 목민관들은 백성들의 삶을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틈타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몰두하였다. 더욱이 사회지도층은 성리학만이 유학의 전부인 양하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공소공론만을 추구하며 당쟁을 일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된 19세기 말은 사회나 당쟁의 악순환이 지속되던 시기였다. 사회적 갈등과 모순, 정치적 분당과 쟁송은 국정의 문란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민중들의 생활은 궁핍의 극점으로 치달았다. 이와 같은 시대적 갈등은 결국 조선의 통치 이념이자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이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성리학이 더 이상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³⁾ 이 시기에 민중은 더 이상 지배의 대상인 피지배계급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주체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민중은 19세기 말이라는 조선의 역사를 이끄는 힘의 원천으로 역할하게 된 것이다.

18세기 초반까지의 민중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유망(流亡) 혹은 도적활동에서 찾았다. 이는 모순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여 체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었던 민중의 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18세기 중반 이후 민중은 유망과 같은 체제 이탈 이외에 상언·격쟁·호소·등소 등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대응방식은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민중이 모순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견되고 있었다는 사실⁴⁾은 조선 후기 사회의 인권과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근대성의 발현의 밑거름이 되었다.

민중은 근본적으로 생산과정에서 축출된 계층으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변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서의 농민들의 대응방식은 적극적 투쟁의 형태인 민란으로까지 발전해 갔으며, 사회 정치적 의식도 함께 상승되었다.⁵⁾ 이를테면 민중들은 점차 뚜렷한 의지와 목표 지향성을 갖춘 조직을 형성하였으며 사회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홍경래의 난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는 민중의 주체적인 사회인식과 신분 계급에 대한 전면적 각성이 사회를 지탱하는 민중의 내부에서부터 확산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봉건사회의 해체기에 이르러 발생한 민란은 극에 달해 있던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민중의 여론이 폭발한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향한 그들의 열망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치유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민중은 농민을 중심으로 몰락한 양반에서부터 상인, 수공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연합한 광범위한 집합체였다. 따라서 민중은 자기가 속한 신분의 계급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계층이기 보다는 봉건적인 여러 구속과 제약에 저항하는 주체의 연합체인 것

3) 김영주, 『다산 정약용의 상제천관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3-44쪽.

4) 김성희, 『조선 후기 민중의 유교윤리 전유와 사회의식 성장』, 『사학연구』 제106호(서울: 한국사학회, 2012), 192-193쪽.

5) 하원호, 『조선후기 변란과 민중의식의 성장』, 『사학연구』 제75호(서울: 한국사학회, 2004), 187쪽.

이다. 그러므로 근대성을 지향하는 그들의 몸부림은 결핍의 행로였으며, 그들이 온전히 사회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상처받은 그들의 심신은 치유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2. 증산의 시대인식과 병세문

위에서 간단히 살펴 본 격변기의 조선후기 사회를 직시했던 증산은 ‘진멸지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를 설명하고 있다.⁶⁾ 그리고 진멸지경에 처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공사1-3)

증산은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에 가득 차게 된 원인을 상극(相克)이라는 세상의 운행 원리에서 찾았다. 그는 상생(相生)의 이념을 토대로 후천 선경이라는 종교적 이상사회를 세우고 사회변혁을 꿈꾸던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는 일련의 종교적 역사를 행하게 된다. 그 중 유교적 사회질서를 비판⁷⁾하면서 그가 설파한 유교적 가치관의 조정,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의 상승⁹⁾에 대한 가르침¹⁰⁾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증산의 구체적인 실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병든 세상’을 치

6)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전경(典經)』, 『교법(教法)』 1장 1절; 본 논문의 논의는 증산 관련 전승기록 가운데 대순진리회의 『전경』(대순진리회 교무부,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을 기반으로 논의한다. 또한 이하 『전경』의 인용은 ‘편·장·절’의 일부만을 간략하게 표기한다. 예를 들면 ‘『교법』 1장 1절’의 경우 ‘교법 1-10’의 형식으로 그 전거를 밝힌다.

7)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1-9)

8)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을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노.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교법1-10)

9) 후천에서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교법1-68)

10) 교법1-10, 공사1-32절 참조.

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증산 화천 후 거처하던 방에서 발견된 ‘병세문’¹¹⁾의 내용이다. 왜냐하면 병마개로 사용된 종이에 쓰여진 병세문에는 ‘병든 세상’이 된 원인과 증산만의 치유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증산은 천하가 병든 이유를 부모·임금·스승에 대한 은혜를 망각하여 이 세상에 충·효·열의 도가 사라져 버린 데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부모(은혜)를 잊어버림과 군주(은혜)를 잊어버림과 스승(은혜)을 잊어버린 것이 무도(無道)이며, 세상에 충효열이 사라져 천하가 병들었다”고 하여 세상의 기본적 윤리가 상실되었음을 개탄하며 이러한 사회현상을 무도의 질병으로 진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병은 온전하지 못한 몸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이라면 소병이라 할 수 있지만 대병은 물리적인 약으로는 치유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충효열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하게 된 병은 대병에 해당하며 대병에는 약이 없다(大病無藥)고 한다. 그러나 증산은 큰 병에는 본래 약이 없지만 그럼에도 약을 구한다면 안심·안신이 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큰 병의 약이 안심·안신이라는 것은, 큰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충효열이 사라진 원인을 마음에서 찾아 치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병든 세상이 무도한 가운데 기인한다는 것은 보은의 도리를 저버렸음을 의미한다. 보은의 도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천하가 병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의를 알고 그 은의에 보은하여야 하며,¹²⁾ ‘보은상생은 사람의 도리로서 대의(大義)가 되며, 대도(大道)가 된다’¹³⁾고 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은’이라는 것이 일향적 작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은이라는 것은 상호의 존재와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자기

11) 病有大勢 病有小勢 大病無藥 小病或有藥 然而大病之藥 安心安身 小病之藥 四物湯八十貼

祈禱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

大病出於無道 小病出於無道 得其有道 則大病勿藥自效 小病勿藥自效 至氣今至四月來 禮章

醫統

忘其父者無道 忘其君者無道 忘其師者無道 世無忠 世無孝 世無烈 是故天下皆病

病勢

有天下之病者 用天下之藥 厥病乃愈 聖父 聖子 聖身 元亨利貞奉天地道術藥局 在全州銅谷生死辦斷

大仁大義無病

三界伏魔大帝神位遠鎮天尊關聖帝君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

孔子魯之大司冠 孟子善說齊梁之君 西有大聖人曰西學 東有大聖人曰東學 都是教民化民

近日本文神武神 并務道通

朝鮮國 上計神 中計神 下計神 無依無托 不可不文字戒於人 宮商角徵羽 聖人乃作 先天下之職 先

天下之業 職者醫也 業者統也 聖之職聖之業(행록5-38)

12)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27쪽.

13)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3호(서울:대순진리회출판부, 1985), 2쪽.

가 처한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所願人道 願君不君 願父不父 願師不師 有君無臣其君何立 有父無子其父何立 有師無學其師何立 大
大細細天地鬼神垂察(공사3-40)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임금이 있으나 신하가 없으면 그 임금이 어디에 설 수 있으며, 부모가 있으나 자식이 없으면 그 부모가 어디에 설 수 있으며, 스승이 있으나 배우는 자가 없으면 그 스승이 어디에 설 수 있겠는가.”라는 증산의 언설을 통해 군신, 부자, 사제의 관계는 독존적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서로에 대한 절실한 회구와 배려가가 서로를 온전한 주체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있게 해준 신하에 대해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며,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스승은 스승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하는 신하되게 해준 임금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¹⁴⁾ 다시 말하면, 대대적 관계의 존재양상은 개별적 주체로서의 독립성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교호작용을 통한 상생적 존립 관계여야 한다는 의미부여이다.

Ⅲ. 대순진리회 치유프로그램의 실제

1. 개인적 치유로서의 종교수행

종교인들의 개인적 종교행위 즉, 수행은 결핍된 신체적 정신적 치유를 회구하는 자기연수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리 불가능한 체험을 통하여 결핍의 정서를 정화한다. 이것은 외계의 물리적 조력보다는 내적 자기노력이 보다 더 유효한 종교행위임을 의미한다.

증산은 “병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일어난다(病自己而發)”(예시36)고 하였다. 병의 치유에는 자신의 마음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천지의 중앙이 마음”¹⁵⁾이며, “마음은 일신을 주관하며 만기(萬機)를 통솔한다. 마음이 몸의 주체로서 제병제악(諸病諸惡)을 낚아 들이는 것”¹⁶⁾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행해지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수행을 기도, 수련, 공부로

14) 김영주,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5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113쪽.

15) 天地之中央心也(교법2-5).

16)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49쪽.

나누어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기도

대순진리회에서의 기도는 신앙하는 자가 신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실천적인 노력이며, 신앙의 대상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수행방법이다. 또한 기도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집단적으로 실행된다.

기도란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지성으로 소정(所定)의 주문을 봉송하는 것을 말합니다.¹⁷⁾

상제를 가까이 모시는 정신이란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가 마음에 배고 몸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¹⁸⁾으로 ‘모심’이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의 의례에는 진실과 정성의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대순진리회의 기도는 단순히 기복의 종교의례라기 보다는 증산이 짜놓은 천지공사에 그를 신앙하는 신앙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라고 인식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그들은 기도가 주문을 통해 신명을 내 앞에 모시는 행위라고 인식한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외경의 심정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는 증산의 종교행위인 천지공정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지녀야 하는 마음자세이며, 이를 통해 기도의 종교행위가 일신의 복을 바라는 기복적 종교의례가 아니라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¹⁹⁾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교법1-2)라는 증산의 언설은 남을 잘 되게 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처가 기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난 뒤에 느끼는 행복감을 기도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여기에 기도가 주는 치유의 작용이 있는 것이며 기도가 ‘지극한 정성’ 그 자체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2) 수련

대순진리회에서는 『대순진리회요람』을 통해 수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간과 장소의 지정이 없이 기도주(祈禱呪) 혹은 태을주(太乙呪)를 송독(誦讀)한다.²⁰⁾

17)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제4호(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6), 2쪽.

18)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17쪽.

19) 김영주,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155쪽.

2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75), 18쪽.

대순진리회 수련의 특징은 주문을 송독하는 데 있으며, 현재 대순진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련은 태을주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증산은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교운1-60)는 언설을 통해 수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에서의 수련은 일정한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자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 행해질 수 있다. 수련방법은 종단에서 사용하는 주문 전체를 일독한 후, 태을주만을 반복해서 송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수십연성과 세기연질의 과정인 만큼 상당한 인내를 요하는 수행방법이다.

대순진리회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수련은 세속적인 자아로부터 벗어나 성스러운 실재에 부합하기 위한 자기 훈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²¹⁾ 선악의 가치체계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자기연수의 방법이 수련인 것이다. 신앙인들은 자기완성을 위하여 매 순간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수행방법인 수련을 통해 인간 본래의 양심을 회복하고 자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욕망의 적절한 자기조절이기도 할뿐더러 정신적 신체적 결핍의 자발적 치유행위인 것이다.²²⁾

3) 공부

수련이 개인적 종교행위로서의 수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공부는 집단적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의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공부를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방법으로 지정된 시간에 주문을 송독한다.²³⁾

대순진리회에서 진행되는 공부는 여주 본부도장의 시학·시범공부, 중곡도장에서 시행되는 기도공부, 포천 수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강 등을 들 수 있다.

공부는 종단의 고유한 행사이자 의례적 특성을 지니는 용어이며, 『전경』 전반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²⁴⁾ 종단에서 특별히 ‘공부(工夫)’라고 명명한 데에는 정형화된 의례가 있고, 시간과 공간의 규정이 있으며, 진행하는 방법이 있음을 의미한다.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종교행동으로 수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치지향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학, 시범, 기도 공부는 일진(日辰)에 따른 개인적 수행이 집합된 형식이며, 수도

21) 이경원, 『대순종학원론』(서울: 문사철, 2013), 233쪽.

22) 박상언은 태을주 수행의 효과를 ‘수승화강(水昇火降)을 통한 기의 순환’과 태을주 송독시 발생하는 파장에 의한 몸 안의 ‘생명에너지 증가’를 들고 있다.(박상언, 『치유의 신을 찾는 몸짓 - 증산도 치유의례의 사례연구』, 『종교문화연구』제3호(오산: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01), 266-268쪽 참조.

23) 대순진리회교무부, 앞의 책, 18쪽.

24) 이경원, 앞의 책, 220쪽.

인을 대표해서 천지공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적 이상사회의 건설이 타력적 종교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인 모두가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참여를 통하여 직접 건설할 수 있다는 진보적 종교 사고를 분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기도, 수련 등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보다는 더 강한 책임과 자세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기도, 수련, 공부는 모두 법좌(法座)의 자세로 소정의 주문을 봉송하는 수행 방법이다. 법좌를 통한 주문봉송은 올바른 몸가짐과 청정한 마음가짐을 요구한다. 이것은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종교적 진리를 체득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앞서 ‘병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증산은 세상이 병든 원인을 무도한데서 찾고 있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안심·안신이였다. 충효열이 사라진 원인을 마음에서 찾아 치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증산이 제시한 안심·안신을 우당은 기도, 수련, 공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증산이 병든 세상의 치유책으로 안심·안신을 제시했다면, 우당은 안심·안신의 직접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심안신태(心安身泰)라 하였다. 심안신태란 마음이 안정되어야 몸이 태평하다는 뜻이다.²⁵⁾ 이 말은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 구조로 분할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른 마음에서 건 강한 신체가 유지된다’는 일체적 사고관념을 의미한다. 마음이 되어야 안신이 되며, 안신이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적 치유의 교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겠다. 정서적 신체적 결핍의 구조를 종교적 수행을 통하여 치유하는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행해지며 때로는 집단적으로 행해진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자기연수이며 이상사회의 건설을 회구하는 집단적 의례의 양식인 것이다.

2. 3대중요사업과 사회치유

앞서 살펴보았듯이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에는 치유사상이 내포되어있다. ‘병든 세상’에 대한 진단과 이를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상극지리가 만연한 세상²⁶⁾이 상생의 법리에 의해 운행되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후천선경’으로 명명된 증산의 종교적 이상사회는 피안의 저 언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차안의 현실세계에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우당²⁷⁾은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제반교육사업을 3대 중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25)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49쪽.

26)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강륜(綱倫)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런 불의를 감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 것을 감행하는 자에게 배사률(背師律)의 벌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교법3-34)

27)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1917-1996). 대순진리회의 창시자.

적으로 실행하였다. 즉, 종교사상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대순지침』에 “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제반교육사업을 종단의 3대 중요사업”²⁸⁾으로 하고, “3대 중요사업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종단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사회의 공신력이 높아지며”,²⁹⁾ 그렇기 때문에 “3대 중요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단의 연간예산을 최대규모(70%)로 편성하고 규모있게 쓰도록 하라”³⁰⁾라고 명시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3대 중요사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호자선사업은 국민총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재민 구호, 불우이웃돕기(고아, 병자, 노약자, 빈민) 등의 구제사업을 펴 나가는 것”³¹⁾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이와 함께 “소의 당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자혜(慈惠)를 베풀고 구호자선에 힘써 재활의 기쁨을 심어 주는 것”³²⁾과 상조회 조직의 확대를 통한 구제활동,³³⁾ 취로(就勞) 알선³⁴⁾ 등에 앞장서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것은 대순진리회의 교리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대한 물리적 치유로 환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구호자선사업 지원금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2억 4천 142만 9,410원의 구호자선사업비를 사용하였고, 이후 1998년까지의 총액은 22억 2천 332만 9,500원으로 90년대 들어 대폭 증가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구호자선사업비로 16억 1천 235만 775원이 지원되었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구호자선사업에 24억 7천 517만 5,645원이 지원되었다.³⁵⁾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살펴보면, “안주(安住)는 국가 사회의 은혜이니, 안주에 보은(報恩)하는 믿음으로 헌신 봉사의 충성으로써 사회 발전과 공동복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도리를 다하라”³⁶⁾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업은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부인회와 청년회를 통한 사회봉사,³⁷⁾ 양로원, 병원의 설립³⁸⁾ 등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 사업의 지원금 현황은 1975년부터 1990년까지 9억 6천 190만 7,483원을 사회

28)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97쪽.

29) 같은 책, 98쪽.

30) 같은 책, 99쪽.

31) 같은 책, 99-100쪽.

32) 같은 책, 100쪽.

33) “종단은 상조회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 잘 운영하고 밖으로 확대하여 소외된 사람의 구제에 힘쓰라”(같은 책, 같은 곳)

34)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취로(就勞)를 알선하는 것도 구호자선사업이 될 것이다.(같은 책, 100-101쪽)

35) 정지윤, 『대순사상의 사회적 이념과 그 실천』, 『신종교연구』 29집(천안: 한국신종교학회, 2013), 142-143쪽.

36) 대순진리회 교무부, 앞의 책, 101쪽.

37) “공동복리를 위해서 부인회·청년회를 조직, 운영하여 사회봉사에 앞장서도록 하라.”(같은 책, 101-102).

38) “앞으로 양로원, 병원 등을 설립하여 노고(老苦)와 병고(病苦)의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국민의 복지시설사업도 확대추진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책, 102쪽).

복지사업비로 사용하였고, 이후 1998년까지 총액은 6억 4천 262만 9,200원이 사용되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회복지사업비로 1,200억여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의료사업, 사회복지 행사 후원, 사회복지법인 건립, 대순학사회 캠프 등에 669억 8천 407만 7,160원이 지원되었다.³⁹⁾ 특히 의료법인 대진의료재단은 1998년 분당제생병원(濟生病院)을 준공하여 해원상생(解冤相生)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이념을 의료사업에 실현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진료·연구·의료기술개발·인재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건강의 증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이룩하는 의료기관으로 국민 복리에 이바지 해오고 있다. 특히 종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순진리회 복지재단 및 노인 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센터는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설치와 운영의 의미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회적으로 격리된 노약자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는 물론, 종단 산하 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상생의 이념을 사회에 실천하는 장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학교법인을 설립하여 고등 보통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인재양성에 힘써 나가야 한다”⁴⁰⁾는 훈시에 입각하여 1984년 2월 6일 학교법인 대진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1991년 11월 15일 대진대학교 설립인가 후 1992년 3월 13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대진대학교(1992)를 비롯하여 대진고등학교(1985)·대진여자고등학교(1989)·분당대진고등학교(1994)·일산대진고등학교(1994)·수서대진디자인고등학교(1996)·부산대진전자정보고등학교(1996) 등을 개교하여 인재양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진대학교에서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치유관련 교육과정을 구상하여 2015학년도부터 실행할 계획에 있다. 대진대학교의 위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2개의 군단이 상주하는 군사적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분단의 현실을 실감하고 있으며 또한 잦은 군대내 폭행 및 자살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그 해결책을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진대학교에서는 ‘해원상생’이라는 설립이념에 기반하여 ‘인문예술 융합 기반 치유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병영문화 힐링 콘텐츠 활용인력 양성 과정’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이는 다양하고 적절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병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 완화 및 회복시켜 바람직한 병영문화를 창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세부사업목표인 “병영문화 Healing Contents 활용인력 양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자, ‘군부대 위탁교육 사업’이 될 수 있기에 인근 군부대와 접경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39) 정지윤, 앞의 글, 113-114쪽.

40) 대순진리회 교무부, 위의 책, 103쪽.

〈표 1〉 인문 · 예술 융합기반 치유전문인재 양성 교육과정표

학 년	제안 학과	교과 번호	교과목명		1학기			2학기			담당교수
			변경전	변경후(5차교육과정)	학 점	강 의	실 습	학 점	강 의	실 습	
2	종문	072017	종교심리학	종교심리와 치유	3	3	0				김영주
	종문	072010	종교수행론	요가명상과 힐링				3	3	0	윤기봉
	종문	072011	종교현상학	종교현상과 병영문화				3	3	0	김영주
	영문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와 드라마 치료							박정근
	영문		신설	연극치료 이론과 기법							박정근
	문콘	031010	논리학	논리적 사고와 문제해결	3	3					황희숙
	문콘	031005	한국철학사	한국철학과 정치사회문제해결	3	3					권인호
	문콘	031094	서양철학사	철학의 위안				3	3		김학택
	문콘	032104	비판적사고와 논술	예술치유				3	3		김성환
3	문콘	412043	문화와 정치철학	문화활동과 상담심리				3	3		이상훈
	종문	071004	종교와 윤리	트라우마 치유와 종교윤리	3	3					김재천
	종문		신설	종교치유와 카운셀링							윤재근
	한어		현대소설특강	현대소설특강							김성렬
	한어		신설	문학과 독서치유							김성렬
	문콘	032012	커뮤니케이션의 철학	커뮤니케이션과 창작활동	3	3					황희숙
	문콘	032105	철학교전선독 및 철학논변연습	서양고전을 통한 치유와 상담	3	3					이상훈
	문콘	032111	철학교과교재 및 연구법	목민심서와 민관군 역할				3	3		권인호
	문콘	032107	동양철학사	동양고전을 통한 치유와 상담				3	3		유승종
	문콘	032003	윤리학	병영문화와 윤리				3	3		김학택
	음악		고전음악의이해	인간과 음악	3	3					차호성
	음악		낭만음악의이해	음악이해와 치유				3	3		차호성
	무용			동양의례치유	3	3					신명숙
	무용			춤명상 치유				3	3		신명숙
			신설	지휘관 가치의식과 병영문화	2	1	2				사단 인사참모
			신설	인문예술치유실습I	2	1	2				전문가
			신설	병영임상치유실습I	2	1	2				군상담관
	문콘	032100	철학교과논리 및 논술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치유	3	3					김성환
4	문콘	032110	철학교과교육론	철학상담 실습	3	3					유승종
			신설	리더십과 21C 병영문화				2	1	2	군단 인사참모
			신설	인문예술치유실습II				2	1	2	전문가
			신설	병영임상치유실습II				2	1	2	군상담관
합계: 31 과목 87 학점											

“인문·예술 융합기반 치유전문인재” 양성 특성화의 교육비전은 인문·예술 교육과정의 치유 및 재활 촉진적 효과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제간 융합 치유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들이 병영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서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각종 사건·사고 및 자살충동 등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치유 및 재활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즉, 사회적 사고나 갈등,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비롯하는 트라우마와 강박관념,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어려움 등을 회복하여 정서적 균형과 심리적 안정을 찾게 도와주는 치유 및 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인문·예술 융합기반 치유전문인재”로서 “병영문화 Healing Contents 전문가”란 인문학과 예술학의 치유관련 정규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병영생활에서 집단적 괴롭힘이나 개인적 고충, 또는 강박 관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병 또는 간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정서적 균형과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적응 가능한 병영업무를 찾도록 도와주는 ‘소통적 문제해결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⁴¹⁾

인문·예술 융복합 기반 치유전문인재 양성 교육과정은 문화치료, 종교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드라마치료, 무용치료 교육과정을 융복합 특성화시킴으로써 다른 상담치료 전문가와 차별화 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는 인근 병영의 군인들의 안정적인 군생활을 돕고, 또한 일반아동(청소년) 및 성인(노인)의 자기성장과 적응을 도우며, 더 나아가 발달장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상담 및 치료기법을 체계적으로 익힘으로써 각 치료사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 본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해 군입대전 학생들의 경우 입대후 상담병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고, 전역 학생들은 예비군으로서의 경험을 활용해 군부대에서 채용하는 유급의 전문 상담사 및 강사로 배출하며, 여학생의 경우 여성의 관점에서 병영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치유전문가로 사회진출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웃 군부대의 인사참모나 부사관 등 관심 병사 담당관들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 및 보충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군학협력치유 전문인재 양성과정은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없으므로 본 프로그램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건전한 병영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군 전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치유와 관련된 전문직종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당이 강조한 3대 중요사업은 대순사상의 사회적 실천에 해당된다. 종교는 시대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이 당시의 현실을 진멸지경이라 명명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41) 이를 인재상으로 표현하면 인문·예술 융합을 기반으로 창의적 사고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 합리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해결 역량을 겸비한 소통형 인재, 치유 및 치료관련 교육이수를 통한 전문 상담사로서의 치유형 인재, 차이와 다름을 상호주관적으로 인정하는 열린 지성을 소유한 상생형 인재로 표현할 수 있다.

종교 행위와 의례가 선행되었듯이 우당은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순사상의 대사회적 치유를 실천한 것이다. ‘남을 잘되게 하라’는 대순사상의 교의는 나눔과 베품, 화해와 용서의 치유 코드를 몸소 익히게 하여 서로 공경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현재의 위치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개인적 치유로서의 종교수행과 사회적 치유로서의 3대중요본사업은 증산이 진단한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해당된다. 종교수행이 내적 자기노력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치유로서의 3대기본사업은 ‘후천선경’으로 명명된 증산의 종교사상이 우당에 의해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Ⅳ. 청소년 치유프로그램으로서의 청소년캠프

1. 대순진리회 청소년캠프의 현황

종교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교육은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시켜 원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인적 치유에 해당된다. 바람직한 인간의 본질을 발현하게 하는 종교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종교교육이 전인적 치유에 해당된다면 학업과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에 대한 치유 또한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청소년은 국가와 사회의 동량이자 건전한 종교문화를 창달할 내재적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종교생활의 근간을 만들어주고 종교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대순진리회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 청소년캠프이다.⁴²⁾

대순진리회에서는 매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도권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캠프를 운영해오고 있다.⁴³⁾ 캠프는 해원상생·보은상생의 양대 진리를 근간으로 다양한 외부 체험활동과 상호교류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아울러 호연지기 정신을 기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2)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캠프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한 치유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캠프를 통해 형성된 종단에 대한 관심과 종교교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해는 향후 치유프로그램으로서의 종교수행과 3대중요사업 참여 등 성숙한 종교인으로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43) 여주 본부도장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5년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여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년 2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포천수도장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년 1회씩 운영해오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여주본부도장의 ‘대순청소년 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포천수도장의 ‘호연지기 청소년 캠프’는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캠프의 참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포천수도장 청소년 캠프 현황

횟수	연도	방학	여주본부도장	포천수도장
1	2005	여름	814	0
2	2006	겨울	914	0
3	2006	여름	973	0
4	2007	겨울	1,014	0
5	2007	여름	1,057	0
6	2008	겨울	1,017	0
7	2008	여름	1,013	0
8	2009	겨울	920	0
9	2009	여름	1,011	103
10	2010	여름	823	244
11	2011	겨울	731	0
12	2011	여름	743	191
13	2012	겨울	638	0
14	2012	여름	767	236
15	2013	겨울	640	0
16	2013	여름	744	212
총계			13,819	986

〈자료제공:여주본부도장 교무부, 포천수도장 교무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캠프의 프로그램은 해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장에서의 예절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참여 학생들 간의 상호활동을 중심으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인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캠프 일정의 대략을 살펴보면, 첫째 날은 캠프 입소식 후 도장예절과 2박 3일간의 캠프일정소개 및 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참여한 학생들과의 관계 맺음을 위하여 팀별 모임과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며, 이어 청소년 인성교육과 관련된 영상시청과 전문강사의 강의시간을 갖는다.⁴⁴⁾

44) 여주수도장에서 시행된 캠프의 강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전인교육에 기반을 둔 기본교리 교육을 주제로 하고 있다.

둘째 날은 도장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일정으로 외부체험활동을 위주로 진행된다. 문화유산답사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을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저녁시간에 자신의 꿈을 담은 소망등 띄우기와 캠프파이어를 통해 자신들만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부모님, 친구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은 2박 3일의 캠프를 담은 영상물 상영을 통하여 지나온 시간을 추억하며, 롤링페이퍼 작성 등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한 교사들과 친구들에게 소중한 기억을 기록한다. 그리고 소감문 작성을 통해 변모해 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퇴소식을 끝으로 모든 캠프 일정은 막을 내린다.

캠프 기간 중에 진행되는 일련의 프로그램은 대순진리회의 교리체계를 주입식으로 학습시키거나 신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보다는 청소년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캠프에 처음 참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장에서의 예절과 대순진리회의 교리, 종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사회복지사업 등 전반에 걸쳐 많은 정보가 없으며, 거의 무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입소 후 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순진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흥미 있는 영상과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대순진리회를 직접적으로 믿기 보다는 부모의 인도에 의해 대순진리회를 신앙하는 2세대들이 그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에게 종단교리의 직접적인 교육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더 큰 오해와 반감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도장에서의 직·간접적인 체험과 영상을 활용하여 대순진리회를 신앙하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돕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진행되는 캠프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해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매해 회를 달리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를 부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여주본부도장에서는 10대 초·중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종합지『동그라미』를 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도	방학	주제	연도	방학	주제
2005	여름	상생	2010	여름	자신의 꿈
2006	겨울	해원상생	2011	겨울	무자기의 이해와 실천
2006	여름	해원상생	2011	여름	언덕을 잘 가지라
2007	겨울	보은상생-충, 효, 열	2012	겨울	언덕을 잘 가지라
2007	여름	언덕을 잘 가지라	2012	여름	책을 짓지 말라
2008	겨울	남을 잘 되게 하라	2013	겨울	상생
2008	여름	책을 짓지 말라	2013	여름	마음을 속이지 말라
2009	겨울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2014	겨울	언덕을 잘 가지라
2009	여름	마음을 속이지 말라	2014	여름	책을 짓지 말라

〈표 3〉 동그라미 8호~10호 코너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코너	표현	내용
전인교육 (교양, 문학)	린's diary	동화	주인공인 수도인 자녀와 그의 친구들 이야기
	둥이네	만화	훈회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수도인 가정 에피소드
	동그라미 만화	만화	『전경』에 나오는 인물(전봉준 8호, 최익현 9호, 안중근 10호)의 간단한 소개를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
	탐방	글, 삽화	우리나라 역사에 관련된 장소를 찾아 소개하는 내용
	동화	동화	문학적 소양에 필요한 내용
교리교육	질문 있어요	글	대순진리와 수도생활에 관련된 청소년의 질문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한 내용
	상제님 이야기	글	신앙의 대상이신 상제님의 일대기를 『전경』을 중심으로 서술한 내용
	간다 GO!!	글, 사진	『전경』에 나오는 장소를 찾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내용

〈자료제공: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 교무부〉

『동그라미』는 문학적 소양과 교양함양을 위한 ‘전인교육’ 분야와 『전경』을 바탕으로 대순진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교리교육’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1호를 시작으로 2009년 5호까지 대순청소년 캠프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2012년 6호부터는 청소년종합지의 성격을 표방하며 매년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종교단체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책자를 출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은 대체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어려운 문체로 되어 있다. 『동그라미』는 이 같은 실정에서 어른이 아닌 청소년에게 대순진리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된 것이다.

2. 청소년캠프의 과제와 전망

청소년캠프는 캠프의 특성상 학습자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앙교육은 그래서 더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에 질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과제가 교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 일하는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로써, 가르침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며, 행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 행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⁴⁵⁾ 따라서 학습자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능력을 이끌어내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의 자질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5) 한국교원교육학회 편, 『교직과 교사』(서울: 학지사, 2007), 17-19쪽.

현재 종단에서 진행하는 청소년캠프의 교사는 캠프진행의 특성상 종단 임원과 대학생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종단 임원은 신분의 특성상 자제들을 길러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이해함에 있어 사랑과 헌신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생 교사는 자신이 참여하여 체험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용이함을 가진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학생의 입장에서 같이 교육받았던 입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된 것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지만 아무튼 짧은 시간 진행되는 캠프는 진행되는 교사의 자질에 의해 캠프의 성공여부가 판가를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이다.

교사의 자질은 정확하고 만족스럽게 정의할 수 없고,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표준화하는 것도 어렵다.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질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사에 의해 종단의 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캠프에 임하는 교사는 학생을 소중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사명의식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의 자질과 관련해서 칼 로저스가 명명한 ‘인간-중심교육(person-centered educatio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담자중심 상담이론으로 잘 알려진 칼 로저스의 심리학 이론은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 1960년대 이후 교육문제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가 명명한 ‘인간-중심교육’은 인간(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혹은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방법)을 중점으로 하는 교수법 실험을 통해 교육을 ‘촉진(facilitation)’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인간-중심교육’은 기존의 ‘관습교육(conventional education)’보다 효과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⁴⁷⁾

학습자가 알고 싶어하는 지식에 대해 관심을 갖기 보다는 교수자의 ‘권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적으로 학습자가 알아야 한다고 결정된 지식 혹은 교수자가 생각하기에 학습자가 반드시 학습해야만 한다고 ‘선택’한 지식만을 전수하는 교육은 ‘삶의 기쁨-유레카’를 경험하기보다는 로저스가 우려하고 있는 ‘무의미한 철자의 학습’만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 ‘인간-중심교육’을 통한 학습에서는 학습에 대한 ‘촉진’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중심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학습 욕구를 지닌 존재로 보며, 동시에 인간은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천성과 잠재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더욱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노력과 사회적인 환경과 ‘교수(teaching)’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⁴⁸⁾ 그런 의미에서 교육현장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

46) Field, B., Field, T., *Teacher as Mentors : A Practical Guide* (London: The Falmer Press, 1994), p.25;

김기태 ·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서울: 교육과학사, 2003, 117쪽 재인용).

47) 김성희, 『힐링(Healing)으로서의 교양교육 -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4호(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441-442쪽.

48) 위의 글, 443쪽.

해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전수교육’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 캠프에 참여한 학습자로 하여금 ‘교수(teaching)-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진실함(誠)’을 들 수 있다. 교수라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전수’를 의미한다.⁴⁹⁾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을 걱정해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심을 다해 잘 들어주는 선생님을 바라고 있다. “모든 일은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 사람 기르기가 누에 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교법2-24)라고 한 증산의 언설로 본다면 교사는 항상 끊임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학생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2년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영했던 10부작 〈학교의 고백〉 마지막회(10회) 힐링을 주제로 한 내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학생들을 걱정해주는 선생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정의내리고 있었다. 이처럼 학생들은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선생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학생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부족한 자신을 기다려 주어 마치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존중(敬)’을 들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의 ‘경’은 초월적 신격 앞에 선 인간이 느끼게 되는 외경의 자세를 의미한다.⁵⁰⁾ 이러한 신에 대한 외경의 자세는 일상생활로 연결되어 인간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된다. 즉 인간 상호간에 올바른 언행과 처사에 모범이 되는 태도를 통해 서로를 마치 하늘을 섬기듯이 존중하고 섬기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 기성세대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은 결국에 대화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학생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접근 보다는 성적, 대학, 취업 등에 ‘공부’의 모든 것을 귀결시키는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학의 졸업이 직업의 보장, 나아가 생의 안위에 직결되지 않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학생들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인생 목표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물질적 가치관에 귀속하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때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될 것이며, 진심어린 조언과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신뢰(信)’를 들 수 있다. ‘신뢰’는 서로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이다. 서로를

49) 위의 글, 445쪽.

50) 김 덕찬이 상제를 대함이 항상 거만하나 상제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도리어 덕찬을 우대하시더니 하루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사를 행하실 때 크게 우뢰와 번개를 발하니 덕찬이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하려 하니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네가 죄 없거늘 어찌 두려워 하느냐」 덕찬이 더욱 황급하여 벌벌 떨고 땀을 흘리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더니 이후에는 상제를 천신과 같이 공경하고 받들었다. (교운1-23)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형성된 변하지 않는 마음이며, 실천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1-5)라는 중산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와 학생 간에 불신으로 인한 벽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문제가 상호간에 생긴 불신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실천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중산은 “믿기를 활을 다루 듯이 하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어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교법2-35)라고 하여 믿음에 있어 성급함을 멀리하고 점진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을 강조한다. 2박 3일이라는 캠프의 짧은 기간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믿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그 결과 믿음을 주고 기다려주기 보다는 교사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청소년 캠프가 종단에서 주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현재의 참가자는 다음 캠프의 잠재적 참가 대상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 캠프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실제로 직전 캠프와 달리 보다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 교사들을 감동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들 수 있다. 진실함과 존중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간의 대화는 곧 바로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소통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진심을 다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큰 위안을 준다.

소통은 교수자 스스로 학습자의 감정표현에 대해서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이며 공감적인 이해를 하려는 노력을 할 때 가능하며, 공감적인 태도 및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에 대한 경청이 필요하다.⁵¹⁾ 소통과 경청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감능력을 배가시켜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많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 영성 발달이 아직은 미성숙상태인 청소년들은 종교교리의 직접적인 학습보다는 종교인의 언행을 통해 종교교리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종단의 캠프에 교사로 참여하게 되는 종단의 임원 및 대학생 교사들은 자신들의 언행이 청소년들에게 종단의 교리적인 측면에 대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종단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캠프 교사라는 직분에 임해야만 할 것이다.

V. 결론

2012년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영했던 10부작 〈학교의 고백〉 마지막회(10회) ‘힐링다큐

51) 김성희, 앞의 글, 451쪽.

-말해줘서 고마워'편은 청소년들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학교', '성적', '꿈' 등에 관한 자신들의 생각을 여과됨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 가치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고, 사회의 어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와 생각들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좋은 선생님'이란 질문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 특히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답변은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지향해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는 듯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려고 애쓰는 부모와 선생님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피교육자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최선의 교육으로 자부하며,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만 고민한다. 피교육자인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는 노력 없이 말이다.

청소년들은 조급하다. 실패와 시련을 견디기보다는 포기로 내몰린다. 성과를 바라는 어른들의 조급함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실패와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 대신 조급함과 실패, 시련, 포기 속에서 청소년들은 상처받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믿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청소년들은 아직은 미성숙한,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의적으로 정해진 하나의 기능성만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릴 것이 아니라, 세계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⁵²⁾을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이 그려주는 정형화된 줄거리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살아 있는 드라마를 구성하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심을 다한 경청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단순히 귀로만 잘 드는 경청이 아니라 따뜻한 눈 맞춤과 배려가 전제된 경청이 이루어질 때,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종교가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종교교육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52) 上田紀行, 宗教クライシス, 양역관, 『종교의 위기』 (서울: 푸른숲, 1999), 175-176쪽.

참고문헌

- 『전경』
- 『대순지침』
- 『대순진리회요람』
- 김기태 · 조평호, 『미래지향적 교사론』,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김성희a, 「힐링(Healing)으로서의 교양교육-학습을 촉진하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4호, 서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 김성희b, 「조선 후기 민중의 유교윤리 전유와 사회의식 성장」 『사학연구』 제106호, 서울: 한국사학회, 2012.
- 김영주,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45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4.
- _____, 「대순진리회 마음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43권, 익산: 한국종교교육학회, 2013.
- _____, 「다산 정약용의 상제천관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회보》 제3호,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6.
- _____, 《대순회보》 제4호, 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6.
- 류성민, 「종교적 질병 치유의 사회문화적 의미」 『종교연구』 제35집, 서울: 한국종교학회, 2004.
- 박상언, 「치유의 신을 찾는 몸짓 - 증산도 치유의례의 사례연구」 『종교문화연구』 제3호, 오산: 한신대학교 종교와 문화연구소, 2001.
- 안동현, 「청소년에게 왜 힐링이 필요한가?」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서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2013.
- 윤재근, 「대순사상의 종교교육 이론-인존의 교육적 인간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2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7.
- _____,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이경원, 『대순종학원론』, 서울: 문사철, 2013.
- 정지윤, 「대순사상의 사회적 이념과 그 실천」 『신종교연구』 제29집, 천안: 한국신종교학회, 2013.
- 최수일, 『개벽연구』, 서울: 소명출판, 2008.
- 하원호, 「조선후기 변란과 민중의식의 성장」 『사학연구』 제75호, 서울: 한국사학회, 2004.
- 한국교원교육학회 편, 『교직과 교사』, 서울: 학지사, 2007.
- 上田紀行, 宗教クライシス, 양억관, 『종교의 위기』, 서울: 푸른숲, 1999.

원고접수일: 2014년 11월 20일 심사일: 2014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17일

연구자소개: 윤재근

- ① 전공: 종교교육, 한국신종교사상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한국종교, 한국신종교사상
- ③ 주요논저: 「종교와 인격」, 「대순사상의 인간형성이론」, 「대순사상과 생태적 환경보존의 문제」, 「대순사상의 종교교육이론」, 「한국 신종교의 도교문화와 생명관」, 「증산의 유교비판과 수용」
- ④ E-mail: jkyoun@daejin.ac.kr

연구자소개: 김영주

- ① 전공: 한국신종교, 한국철학 / 소속: 대진대학교 종교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한국신종교, 종교교육, 한국철학
 - ③ 주요논저: 「증산 강일순의 신선사상」, 「다산 공부론에 있어서 주체성 확보문제」, 「증산 수양론에 있어서 욕망 해석의 문제」, 「대순진리회의 대안교육」, 「대순진리회 마음 공부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생명윤리와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 ④ E-mail: eureka0710@daejin.ac.kr
-

Abstract

The Religious Educational Accesses In Healing: From Daesoonjinrihoi Standpoint

Yun, JaeKeun · Kim, YeongJoo

Daejin University

Healing is icon that represent modern society. At some point we are living in the term of healing such as healing camp, healing yoga, healing trip which already has the meaning of healing but rephrases it more by using the term of healing. Several years ago the term well-being was the general trend but in our society majority of people are still ill. The religion or education target all human being and the change in direction is more desirable. In that sense, religious study is the way to heal essence of human being to a perfect person. Therefore, religious education should be the education that educatee will be a mature man.

The goal of this dissertation is how we approach healing into religion education in point of Daesoonjinrihoi.

In discussion of healing from the prospect of Daesoonjinrihoi, we first will discuss about ideological foundations of Daesoonjinrihoi healing program based on late in the nineteenth century circumstance and Jeungsan's awareness of time, and based on this information we will discuss current Daesoonjinrihoi healing program in two different group, personal healing and social healing.

finally we will conclude this discussion by suggesting prospect from the youth healing camp which is on proceed by Daesoonjinrihoi.

Religious education as a religious healing that targets the young men in the immature stage program is major concerns in our society.

The youth is the pillar of national and society to grow as a mature citizen and develop the culture of religion.

Key words: healing, mind, personal healing, social healing, youth camp